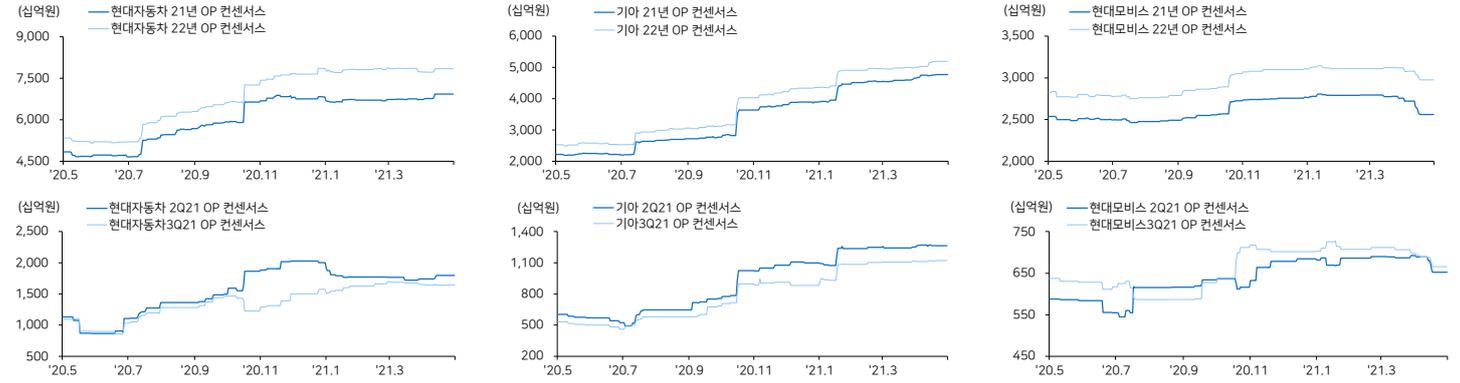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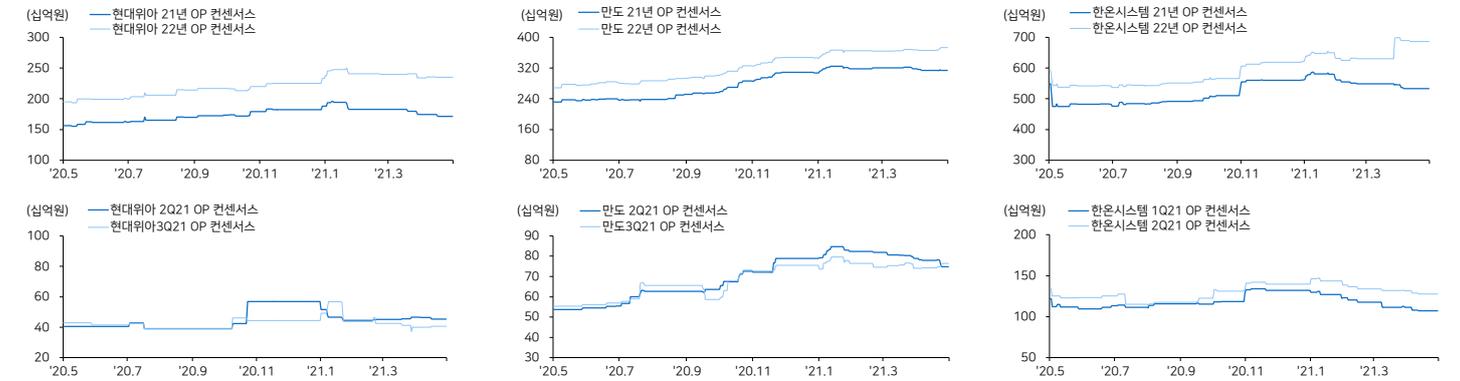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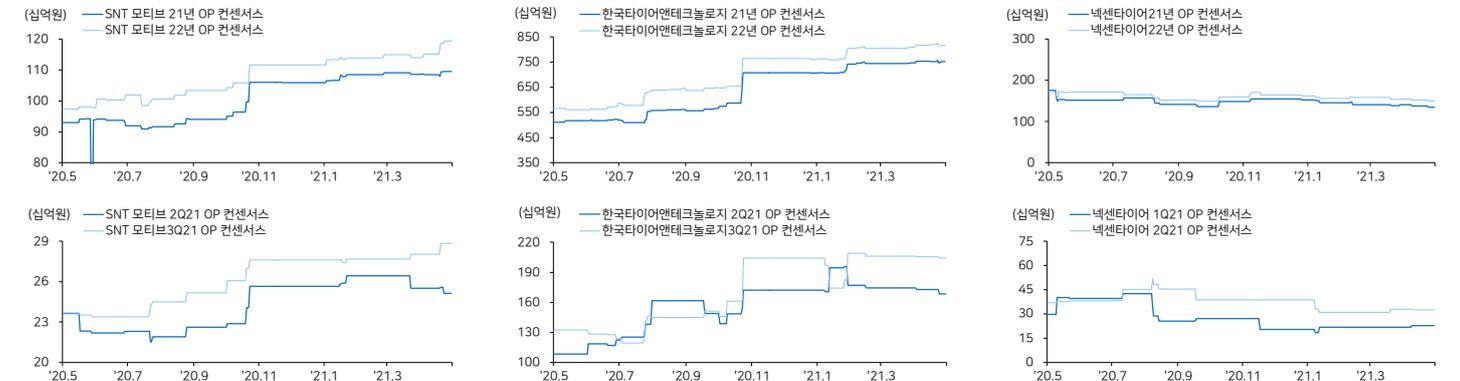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미 질주 배경은 공격적 반도체 선주문...5월도 이어지나 (THE GURU)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4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포함해 총 15만994대를 판매하며 북미 진출 이후 역대 최대 월간 판매고를 올린 반도체 수급 부족의 '피크'로 예상되는 5월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중.
<https://bit.ly/3uBk0Kc>

현대차 전기차, 픽업중흥해 가져다 준다 (파이낸셜뉴스)

현대차가 자사 전기를 보유 한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을 픽업해 충전 및 간단한 실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인도해주는 '픽업 앤드 충전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 비용은 2만원이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
<https://bit.ly/25IBUFU>

이제호 카카오톡모빌리티 소장 "앱 호출 자율주행차 곧 공개" (일간스포츠)

이제호 카카오톡모빌리티 소장은 한정된 영역에서 반복 주행하는 폐쇄형 자율주행 서비스는 가까운 미래에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 카카오톡을 발판 삼아 자율주행차를 대중화한 뒤, 달라지는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부가서비스도 개발할 계획.
<https://bit.ly/3yc4E4q>

빙그름, 스마트폰·TV 생산 접고 전기차 올인 (THE GURU)

베트남 빙그름이 스마트폰과 TV 생산을 담당하는 빈스마트를 전기차 부품 연구·생산 회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TV,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기차 배터리와 엔진, 부품 개발과 제조에 주력할 계획.
<https://bit.ly/3fj6jcy>

현대·기아차 "올해 베트남 시장 장악 日 브랜드 따돌리는 원년될 것" (글로벌비즈)

아세안 국가들 중 3, 4위 규모의 자동차 시장을 넘보는 베트남에서 현대차가 '21년 누적 판매량 1위, 기아차가 2위를 차지'한, 지난 1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일본 도요타는 3위로 내려왔으며, 베트남 빙그름은 5위로 올라섬.
<https://bit.ly/3o73iCs>

한온시스템, 日 게이힌 유럽·북미 콘센트 사업 인수 (아시아경제)

한온시스템은 지난 7일 일본 게이힌의 유럽·북미 콘센트 사업을 인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콘센트는 ICE와 xEV 전 차량의 열교환 역할을 하며, 사족은 이번 인수가 친환경차 열관리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https://bit.ly/3eA9Q9k>

후 반도체 대란에 원자재값 경증... 올고 싶은 부품업체들 (세계일보)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서 시작된 부품 생산 차질에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중. 최근 중국 철관선 가격(CFR)이 지난 6일 사상 200\$/t을 넘어선 원자재 부담 역시 심화 중.
<https://bit.ly/3xZ7KHh>

자율주행: 달리는 미, 뒤 는 中... 열리는 신시장 (글로벌이코노믹)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35년 1,334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일부 기업들은 '23년 안으로 무인 로보택시가 가능'하다는 입장. 자율주행 기술 리더가 모빌리티 생태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로 평가받음.
<https://bit.ly/33sQAV1>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